멍텅구리 가뎡생활 (60) 싸움시초

(一) 마음이 노히멍텅 그밧으로요리집을가서

(二) 술이억병이되어개천에둥굴다가

(三) 아비가알까보아 옥매에게청을하되

(四) 바아지를끈는통에 … 이들려

◇……녀성동우회간부제씨……◇

경성에서 활동하는 녀자단톄 (五)

조선녀성동우회

사회진화법측에의한 새사회건설을목뎍 신년부터녀성통계작성

조선녀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는일천구백 이십사년오월구일에 허정숙(許貞淑)、주세죽(朱世竹)、정종명(鄭鍾鳴)、우봉운(禹鳳雲)、고원섭(高遠涉)다섯녀사이외 칠인의발긔로 창립되엿스니 그달이십삼일에 즉시발회식(發會式)을 거행하고 모든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엿다

一、사회진화법측(社會進化法則)을표준삼은 새사회의건설과 녀성해방운동(女性解放運動)에설만한일군의 훈련(訓練)과교양(敎養)을 도모하고

二、조선녀성 해방운동에 참가할녀성의 단결을 긔약함

이것이곳 본회의 강령(綱領)이다 회원은본회의 목뎍을달하고 의무에복종할만한곳은뜻이잇는 십팔세이상의 조선녀성으로 바드며 회원이 인이상의보천(保薦)과 집행위원회의결의가잇서야한다하며 회의사업으로는

一、일반녀성에게 해방뎍 의식(解放的意識)을각성케할수양긔관(修養機關)을설치함

二、출판물발행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등을 째째로개최함

三、그밧게 림시로 필요한사업을하기로하엿스니 현재 일곱사람의 집행위원과 두사람의상무간사(常務幹事)를선뎡하야일반사무를 처리케하고 매년삼월딸일에뎡긔총회(定期總會)를열고 집행위원들의 보고에 의지하야 모든일을가결케한다 그럼으로총회는 본회의최고긔관이 되엇고 집행위원들은 본회의 최고간부(幹部)가되는것이다 회의경비는입회금 오십전과월연금(月捐金)이 십전으로쓰게하고 특별한 의연금(義捐金)을거두기로한다 회원은 칠십삼인이니 년령 이십세이상 삼십삼사세와까지도 잇스며 이십륙세의 녀자가가장만코 직업은 대부분이 학생들인바 경성안에 잇는 각녀학교학생들도 몰론만커니와 아라사와 중국과일본에 류학하는 학생들이 적지아니하고 그외에 교원과간호부 산파도 잇스며 긔자와가뎡부인도 잇다한다 그들은지난일년동안에 여러번녀성문뎨(女性問題)에대한 강연회를열엇고연구반(硏究班)을조직하야 매주일 한번식부인문뎨에관한서적을 읽고토론하며 국데(國際)부인데ㅣ를 긔렴하기위하야 간담회를 열엇섯고 헐벗고주림에 견듸지못하야 구준비찬서리를헤아리지아니하고 정미소(精米所) 비단회사 고무공장등각곳에 눈물과 피로써희생하는가련한로동부인(勞働婦人)들에만일의설홈이라도위로하고저 데일회로 로동부인위안음악회도열엇셧다 그리고그들은 이백년래에 처음인 금년녀름에 큰홍수로인하야 집일코 세간일코몸까지닐을에장사할번한수재피란민(水災避難民) 구제에 로력하엿다 십팔일오후에 긔자가락원동에위치를둔그회관을방문한즉 언데 나원긔왕성하야 한번사상운동선에 용장이 될듯한그회원들은 테ㅣ블을 중심삼고혹은안기도하고 혹은 둘러서기도하고 잇섯다 그회의발전책(發展策)을의론인 허정숙(許貞淑) 녀사는긔자와친숙한녯벗인지라 반가히 손을쥐고 회에대한 자세한내용을일일히 들려준후 깃붐의 새해를마지하는동시에 한살더자라나는 그회의사업도 일층새롭게하고저 벌서구톄뎍으로 작정된 모든포부를말하여주엇다 병인(丙寅)의복된해를 마지하는그들은 과연엇더한 활동을하라는가?

一、녀성통계(女性統計)——농업부인 로동부인 직업부인 학생가뎡부인등을권조선뎍으로 됴사하야 각각그통계표를만들고 녀성운동선상(女性運動線上)에나선이들의 통계도보려라한다

一、문고설치(文庫設置)본회의목뎍을관철함에 도음이되는 서적을 회관에설치하고 회원들의독서를 권장할터이요

一、순회강연

一、로동야학

一、로동부인위안음악회

一、출판(부인문뎨에관한것)

一、녀성문뎨에대한누인강좌

를 개최할 예뎡이라한다 긔자는 귀회의분투와 발전을마음으로 그윽히빈다(사진은당일회관에모혓든회원들)

◇……십구일밤에열닌태화녀학교의파ㅡ사회……◇

상의

로서아의 사정을 알라면

『문』 커는호긔심이만흔사람입니다 현금로서아정치와사정을알라면엇던책을구하여야되겟습닛가 가르켜주십시오 (西大門町金漢禎)

[답] 다른나라에는여러가지로로서아사정에대한 서술이잇스나우리나라에서 출판 된것은 본사 긔자 김준연씨의저 『勞農露西亞의眞相』 이란것외에는 조직뎍으로 상세히서술한 것은 업슴니다 그책발행소는 京城府鍾路二丁目中央書林이며定價는一圓이라합니다

一、투표방법 이번 주앙련압대매출에 참 …

傳說

엇던나라에가든지 그나라에는여러가지뎐설이잇슴니다그것을보면그나라의인정과풍속을잘알수잇슴니다그럼으로이러한뎐설가튼것은어른들이읽어도자미잇슬뿐아니라아동문학(兒童文學)의재료로도가장귀중한것입니다그럼으로어린이신문과동화와이러한뎐설을섞어로교대하야여러분어른이나여러분어린이들이자미잇게보시도록하겟슴니다그리고처음에소개하는『세가지수수겨기』는영국의자미스러운뎐설임니다

세가지수수겨기 (1)

一、중의죄

옛날『존』이라하는 님금이잇섯슴니다 성미가조급하고 성을 잘내며 게다가또 란폭한행동을 잘하는고로 나라백성들은 님금을몹시 시려하엿습니다 그러나 만일욕을 하든지하야 그소리가 님금의귀에 드러가기만하면 엇더한벌을 바들는지 알수업슴으로 낫몰래속으로는 무엇이라중얼대면서도 님금에게 충성스러이 간하는사람은 한아도업섯습니다

마침그때에 『칸타베리』 라는 마을의 승원에돈을 만히가진중이한아 잇섯습니다 엇잿든지 화려한의복을입고 승원을 고흡게 치장을하엿습니다 그리고 비록강도가튼것이 들어올지라도 승원의보물을 아니쌔앗길만큼 힘세인용사를 오십명이나 거느리고잇섯슴니다

이용사들은 언제든지 도적놈이오기만하면 곳차와보려고 칼을갈고갑주를가추어기다리고잇섯습니다 그러함으로 이승원에는 드러갈생각도 여간도적놈은 하지못하얏슴니다

중은 손님을청하야 음식대접하는것을 대단조와하야 날마다 백여명식 청하여다가 잔치를베풀엇습니다 그리하야 깃분낫으로도라가는손님의얼굴을보는것으로 큰락을삼엇습니다

중은 이세상에서 자긔처럼 행복스러운사람은 다시 업스리라하야항상빙글빙글우섯습니다

文藝

金剛禮讚 (六七)

白雲香徒

飛鳳瀑

◇天花臺를건너가서 緞繡를붓잡고 비알로올라서면 左後로나려다보이는『배소』의美觀이 새로히안라와운愛着을자아냄니다 여긔서부터길은더욱가다로워지야 붓는고여안들것이 업스면거의발을내노치못할곳이 이됩니다 이렇케한고개를넘으면 이째와지險峻하다하든것을다삭켜야할 과연險峻한길이 시암헤나섭니다 놉고가다라워 그런것아니라 민듯비시듬한큰 巖崖가 사람다닐사정을조금도 돌보지아니하고 쑥쌔드려젓는데 그알에는深不測한 潭水와 峯不得할危石이 한번터 사람의숨개를 쉬는하게합니다 前日에는 匹木을나무에걸고매달려서나 다니든곳이나 시방은 쇠말뚝을박고 좋나무로層階도 만들고 그래도 거북한곳에는 鐵欄干까지를처서 心弱한者라도膽大한빗을보일만치해노핫습니다

◇이러케위태롭건마는 아모라도돌아설생각을 내지안키는 알에로나려다보이는 璉珠、眞珠兩潭의아름다움이 사람을홀이기쌔문입니다 玉流洞은도로혀繁曼하다하야거긔서어수선한 分子를다업새고 다만坦白하고 다만簡淨하게 다시한意匠을쎄운것이 이兄弟潭의風光이니玉流洞을文殊라하면 兩珠潭은維摩라할것이오 玉流洞에서法席을치럿다하면 兩珠潭에서는禪窟로드는것이라할것입니다 더욱玉流洞의리옷이 고대이兩潭의兩者로하야곰各濟其美上不得不然할것임니다 男性的인外金剛、또그玉流洞에서 가장男性的氣象을豐富히 禀有한것이 이兄弟潭입니다。

◇이로부터 썩은나부層階와 버스러진돌비탈을한참동안 오르락나리락하다가 바윗돌징검다리로하야 『가운댓房』 물나들이』란데를건너면 다시鐵索과 木梯의신세를지고 四五곳되는 巨石의斜崖를더위잡아올라갑니다 璉珠潭에서이쯤까지의景物은 매운맛이돌도록 씩씩하야 도저히遊興的氣分으로써對할수 업습니다 으리으리란것이 이런것을닐음인줄알게됩니다 비탈에를올다서 독독한樹林으로써 눈을잠간가렷다쓰면 구검쌀만흔千仞石壁이 左邊에陡立하고 『피라밋』 가튼一奇峰下의 鞍部로서 一消飛瀑이바람에날리는 청권집쳐럭훌훌바람에날리는 청권집 넘어오다가허리춤을서돌써다귀에걸려臥瀑이되고 平流가되고 정갱이쯤서다시水簾이되어 쏘다지는壯觀이사람의精神을 내두름니다。이것이 飛鳳瀑이란것이니 飛流란문자가미상불여긔서마큼 適切한데도등을듯합니다。頂邊의넘어로는 山이고나무고아모것도보이는것이업스며 오직갓가튼靑天에 은가튼白雲이 매엇다풀렷다할것이매 疑是銀河落九天이예롤두고닐음인가합니다。

◇瀑布를건너면 바닥나무만히난九成臺가 사람을막을듯하다가 어쐬생각하고飄遇식히는데 臺로하여곰一段의精彩를뵈게하는者는飛鳳瀑과거의直角으로 鮫絲斷崖 互斧大劈한石面에 又一瀑布가쏘처나려집니다 이것을前에는 雲錦瀑、시방은舞鳳瀑이라하니 飛字人분보담키는작음벗하나 水量은훨신만코 西疇의너럼새가한엿沈博雄麗한 맛을발뵈어서 사람으로하야곰 翛然한생각을닐히키게합니다。舞鳳瀑에서부터深邃의意가다시한층 增上하야 大靈의손이마음속외지를회젓는듯하고 宗敎的情調가걷음걷음濃厚하야집니다。舞鳳瀑넘어로 올려다보이는 집단이놉다란神仙臺가 분명히神의關鑼이신것가타서 그압헤무릅을꿀고懺悔와祈禱를바치지아니합이 一大罪科인듯마음을압흐게합니다 『어ㅣ하느님!』

小說 青衣夜叉 (청의야차) (七)

金浪雲譯

『엇던사람이던지 무의식으로돈거래를하고 장사를하고 유쾌하게지내고 하는사람은 업스닛가 말이지오』 이러케말하고 그는우섯다 『그러면자네는 어떠와지든지내가하는말을 참으로역이지안는다는말일세그려 그러고나를 실성한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말일세그려』 『색리텐씨는 영감에서 우연히 란심(亂心)상태에 싸젓섯스나 잘주무시기만하면 괜찬켓다고 그랫습니다』 『그러면자네는 나를 유순한광인이라는 생각으로 이제와지 이집안으로 쓸고도라다니기도하고 여러가지를 설명도하여주고 책도보이어주고 하엿네그려 그러고 그러는동안에도 내가로하지안토록 나의비위를 마치고잇섯네그려』 하고 나는맹렬하게 부르지젓다 『자네는 내가하는말을——내정신이바르고 분명하다는것을믿지안네그려 그만가게! 자네에게는 더일이업네 나는혼자잇는것이 조켓네』 『조승니다』하고 그는조곰정이나서 대답하엿다 『나가라고하시면물론나가겟슴니다』 『가소! 그러고 부르기전에는 다시오지마소 알앗나? 나는 모욕을당하고십지안으이 그려고또 미친사람으로 대접밧기도실흐네』 그는 억개를추석하고 알아들을수업시 무슨소리를 중얼중얼하며 서재를 나아갓다 사방을 싸고도는 비밀의안개속에 무치어잇는 나에게는 아모것도 미듬만한것이 한아도업섯다 모든것이다 헛거림자와갓고 모든것이다 허공과가탓다 그러나 내가살아잇다는사실과 이권과는 권허달라진사람이란것과 온권한마음과 온권한정신으로써 흉흉한조흔밤에서잇다는사실은 여전히잇다 잔듸밧 저편으로는 욱어지게 늘어선 나무그늘이 서늘스럽게 바라보이엇다 그래서나는 그늘은뎡원을 건너가며배회하엿다 나의마음속에는 그날밤의광경——내가 그토록사랑하던『안손』의용모가 무럭 써나왓다 그것은 생각만하여도 즐거운일이엇다 손과손을 마조잡고 공원을지나서 『케싱톤』의 풍치원을 배회하면서 도라다니던 그날저녁에의 그의사랑스러움! 보드러운 음악뎍의 그의말소리! 다정스러운 검오스름한 그의두눈! 목가뎍(牧歌的)의 서로사랑하는 마음! 그는 나의마음속에 잇는 생각을 몰론집작하엿슬것이다 나의마음속에잇는 큰비밀을 돈 집작하엿슬것이다 그러나 모든것은 변해버리고 말앗다 녀자에게 잇서서는 혹연이라하면 매우 긴세월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그는 처녀로서 부인으로 변해지는 까닭이다 사건중에 가장 자미업는째가 생각되엇다 나는 사정에엇지할수업시 한마대도 작별하는말을 하지못하고 그와작별한것이엇다 한데 그는——그편에서는——의심할것도업시 다른애인이 생겻슬것이다 아니다 벌서누구와 결혼하엿스리라고 생각하는것이 올흘지도 몰은다 나는 이러케생각하고 가슴이 먹먹하엿다。

나의압흐로는 좌우편으로나무가 늘어선 넓다란길이 일직선으로 쌔치어잇고 길저편으로는 다만훌도 웃둑솟은 마을교회당이 쏫족하게 서잇섯다 조고만바람에 산들산들 웃죽이는 나무밋혀도 갈쌔에 나의마음속에는또다시 려력하게 써나오는것이 잇섯다—— 그것은 예전하로밤의긔억 그 안손색시의 객실에서 발견한 무서운 사실이엇다 나는 그것을 엇더케해석하면 조흘것인가? 나는 쑥으리고안저서 사방을 둘러보앗다 사방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름의 한낫(晝)이엇다 뒤로는 하얀집이정면으로 서잇고 압흐로는 조고만마을이 조곰 바른편으로 노혀잇섯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하얀절벽과 그리고 그저편으로 푸른바다가 나무입사이로 보이엇다 그 나무선길을 엽흐로두고 나는석대를나려가안저서 그푸른바다를 한엿바라보앗다 갓가히는 두척의노리ㅅ배(船)가 매여잇고 수평선 저편에는 검은연긔를 길게토하는 긔선이 다라나고잇섯다

社告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彦陽支局 白
記者 鄭泰均
記者 尹壽岩

今般本支局記者李準龍君은事情에依하야辭任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退潮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大田支局 白
記者 權庚得

今般本支局記者吳蓮姬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얏고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平康支局 白
記者(洗浦駐在)白文河

本報第一千八百八十號第三面社告欄中本支局總務兼記者金用喆氏는但記者로만任用한것이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舒川支局 白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十九日正午 一三、一
◇比較 十八日最低 一三、五 最高 九、五
◇日出前七時四三 日入後五時一八 夜間 一四、二五

順天郡李起桓의 稀有한 中間搾取

地主와 警察에 揮淚訴寃 數十名小作人의 代表

去十五日全南和順郡同福面漆井里大地主吳子鉉氏의 小作料를 順天郡松光面梨邑里朴洪順家에서 收穫하는 中間郡外西面錦城里小作人二十餘名代表金京甫、嚴守道、朴文七三氏는 地主를 面會하고 中間地主의 無理한 搾取로 生活을 繼續할수업다고 揮淚愿情하는 同時에 警察에 까지 呼訴하엿다는데 그 內容인즉 順天郡外西面錦城里李起桓은 前記吳子鉉氏의 兄弟의 沓과 寶城郡文德面竹山里安圭淡氏의 沓과 順天郡邑內金寒珏氏沓合三十五斗落의 小作權을 어더 自己는 耕作치 안코 地主에게 주는 賭租外에 每斗落에 白米九斗式과 藥皁二十束式을 收持하기로 約定하고 中間小作케 하엿든바 今年가티 水風蟲災年임도 不拘하고 地主의 賭租는 못줄지라도 中間小作料는 減할수 업다고 無理搾取할 뿐아니라 甚至於未收者에게는 支拂命令까지 하야 小作權全部는 줄지라도 每斗落에 白米三四斗式이 不足한 小作人等은 참다 못하야 이와가티 一邊地主에게 歎寃하고 一邊警察에 呼訴하엿다는데 一般은 地主와 警察의 今後處理를 無限注目中이라더라(筏橋)

東明學校의 學年延長出願

咸南文川郡都草面私立東明學校는 從來四學年制이든 것을 五學年으로 延長키 爲하야 道當局에 認可申請을 提出하얏다는데 此가 認可되면 明年度부터는 即時實施일터이라더라(文川)

停車場新設願

平南大同郡在京里面開里住民은 同面의 發展現象及將來發展에 鑑하야 順安과 西浦兩驛間인 在京里에 新驛을 設置하여 달라고 林寬益氏를 代表로 當局에 請願하엿다더라(平壤)

郵便配達은 傳之轉便 金溝에도 不平

全北金堤郡金溝郵便所의 遠隔區域配達이 넘우나 遲緩함으로 地方人士들은 莫大한 感情과 困難이 到處에 非常하다는데 草處面에는 六七日만에야 配達夫를 보게된다 하매 新聞은 勿論十餘枚式、五六枚式을 酒幕에나 或은 人便에 傳함으로 管內一般人士들은 郵便配達大問題에 紛紛한다더라(金堤)

江華에서 度量衡取締

江華郡府內面管內에는 近來不正商이 날로 느러감으로 여러가지 弊端이 잇서 此를 取締키 爲하야 當地警察署에서는 今番度量衡器取締를 嚴重히 하는 中이라는데 違反者가 여간 만치 안케 發見되엿다더라(江華)

孔德夜學革新 勞働夜學으로 變更

全北金堤郡孔德面孔德靑年會에서는 昨年未曾有의 旱災로 因하야 十三星霜의 歷史를 가진 同面私立湖成學校가 最後의 運命을 告하게 됨을 會員諸氏가 犧牲的으로 [illegible]을 삽어서 今日까지 維持케 되얏는데 今番에 도 勞働群衆의 文育을 涵治키 爲하야 湖成學校의 經營이든 各洞里夜學을 引受하야 勞働夜學으로 變更하얏다는데 그 革新에 매우 勞力中이라더라(金堤)

平洞水利總會

昨年旱魃에 鑑하야 有志諸氏는 去年부터 計劃하여 오던 湖南線松汀里驛越便黃龍江畔에서 工事費約十餘萬圓으로써 不遠間工事에 着手하게된 平洞水利組合의 認可가 本月十日附로 되야 去十八日松汀中學院內에서 全南殖産株式會社事務取締役宮脇丈八氏의 司會로 組合員總會를 開催하고 宮脇丈八氏는 一般組合員에 對한 式辭와 羅州郡守安鍾應氏의 昨年以來經過報告와 全南道技手末永恭介氏의 事業計劃의 報告가 잇슨後 議員을 左와 如히 選擧하얏다더라

評議員 金炳斗 李喜陽 金東欽 金麟玉 張德守 東洋拓殖株式會社 東山農業株式會社 山口米太郎(松汀)

『우리의 모듬』創立

咸南文川郡明孝面大德長興里靑年들은 當地에 相當한 靑年機關이 無함을 恒常遺憾하던바 去月二十日當地靑年鄭斗洙外諸氏의 發起로 大德公會堂에 集合하야 『우리의 모듬』을 創立하고 即時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文川)

◇決議
一、飮酒賭博을 禁止할일
二、巫覡卜術等一切迷信을 [illegible]할일
三、勞働夜學을 臨時開催할일

◇任員
執行委員 [illegible] 朱在祿 顧問 [illegible]

果谷公普增築

慶北金泉郡果谷面에서는 公立普通學校校室問題에 對하야 四學年生外지 敎授를 식히매 每年入學生의 不便이 만흠에 따라서 入學치 안함으로 同校學務委員李相亮氏外有志十四人이 去十三日에 集合하야 同校五六學年敎室增築問題를 討議하얏스며 建築期成會는 本年度內로 開催할 豫定이라더라(金泉)

甑山靑年創立

慶北金泉郡甑山面에서는 去十一日韓容俊外十三人의 發起로 甑山靑年會創立總會를 開催하얏는데 出席會員이 三十五人이오 來賓祝辭가 만엇스며 韓容俊氏司會下에서 各部와 任員을 左와 如히 選定하얏다더라(金泉)

庶務部 韓容俊 金錫周 蔡龍福
敎育部 金道運 金學祚
文藝部 白龍洙 李三祚
理財部 崔有良 裵致倫
體育部 李相鳳 金又岩

利析秋毫하는 住岩面의 金舍音

收租에 度量衡兼用

全南順天郡富豪金鍾翊은 今年租穡初에 小作料調定並收納法을 一切舍音에게 一任하야 面마다 該面舍音이 該面事를 負擔케하엿는데 順天郡東草의 姜琪洙와 松光面의 李昌祚는 相當한 調定으로 相當한 收納을 하엿슴으로 一般小作人은 地主外지 頌德이 藉藉한데 惟獨住岩面舍音金年洙는 同面倉村에잇는 金地主의 倉庫에서 小作料를 收捧하는데 斗概使用하라는 法令도 無視하고 첫재 『섬』으로부터 其厚薄長短을 考察하야 各小作이 一定히 하라고 尺寸法으로 苛察을 始作한 後 高斗로 一次量入한 後衡器로 다시 달아보와 一百九十斤以上이 되면 收納하고 一百九十斤이 못되면 되도록 加徵하야 二斗或三斗를 더 담어서 作斤하는 方法으로 收租하며 或紛忙하면 斗量하지 안코 衡으로만 달아서 一百九十斤이 되면 入庫함으로 住岩倉庫小作人은 今年이 災年인 中 더구나 惡舍音을 맛나서 全收穫을 다 被奪하고 白屋寒燈에 痛哭하는 사람이 太半이라더라(順天)

元山興業社 李朴兩氏釋憾

當地商業界의 重鎭으로 二十餘年의 歷史를 둔 株式會社興業社는 去九月分에 重役間에 同會社의 營業科目의 一部이던 京城紡績會社의 綿布販賣事件으로 因하야 一時紛爭이 生하야 株主朴昌祚氏가 當時取締役(數個月前辭任書提出)이던 李秉均氏를 거러 元山檢查局에 背任罪로 告訴를 提起하야 爾來審理中이던바 十一月三十日에 不起訴의 處分이 되엿는데 近日에 至하야 李秉均氏가 此를 探知한 後 誣告罪로 朴昌祚氏를 告訴한다 함으로 만치안흔 우리 實業界의 一大不祥事라 하야 當地客主組合長崔某周氏가 斡旋의 勞를 執하고 數次李氏에게 勸告한 結果 互相憾情이 融和되리라더라(元山)

正直한 學生

天安郡笠場面下場里四四番地朴相來氏의 아달 朴昌甲(一五)은 方今笠場面學校四學年에 在學中인바 去六月朝朴潤秉商店前路를 지나다가 紙貨五十圓이 떠러젓슴으로 곳집어가지고 當地駐在所에 委托하야 主人을 차저주게한바 그 돈은 朴潤秉氏의 夫人이 遺失한 것으로 即時推去하얏다는데 朴潤秉商店에서 謝禮하는 것은 勿論이요 一般은 朴昌甲의 正直함에 對하야 稱頌한다더라(天安)

光陽青年會 革新紀念雄辯

全南光陽郡靑年會에서는 去六日革新總會를 開催하고 腐敗와 因陋를 一掃한 舊殼을 불살으고 新陣容을 整頓하야서 民衆과 함께 新社會를 建設하기에 力戰하자는 旗幟下에 革新을 斷行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會에서는 革新以後첫事業을 하기 爲하야 또는 紀念하기 爲하야 去十六日中央委員會를 열고 左記와 如히 近郡靑年男女聯合懸賞雄辯大會를 開催하기로 決議하엿다는데 近郡靑年男女는 多數參加하여주기를 希望한다더라

◇細規
日時、乙丑十二月三十日 場所、光陽靑年會館 申込期限은 十二月二十八日外지 申込場所는 光陽靑年會館 施賞은 一等으로부터 三等外지 辯士優待는 他郡辯士에 限하야 宿泊料를 本會에서 負擔(光陽)

江西電燈 明春에 完成

平南江西郡은 長久한 歷史를 가진 關西의 名郡으로 大正五年以來大規模의 江西水利組合과 江西遊龜堤水利契의 二大水利事業을 施設하엿스며 따라 各種產物의 豐富한 富郡임을 不拘하고 尙今電燈의 架設이 업서 莫大한 不便이 됨을 遺憾으로 여기던바 大正十一年에 同郡岡村郵便所長이 平壤興業電氣株式會社에 交涉한 結果 同會社에서 承諾한 後 調查한 結果成績이 良好할것을 豫測하엿스나 圓滿히 架設에 着手치 못하게 된 故로 今年六月同郡에 電燈創立會를 開하고 同會에서 岡村氏로 交涉委員을 選定하야 前記電氣會社에 交涉한 結果 逐히 圓滿한 諒解를 어더 方今架設線路를 測量中이라는데 明春四月에는 期必코 電燈架設이 完成되는 同時에 諸般工場과 事業이 隆起하여 同郡發展上希望이 多하리라고 觀測한다더라(江西)

平昌市場移轉

今月十五日부터 江原道平昌郡에는 市場區域이 狹窄하야 將來商業發展의 餘望이 無하다고 一般商民은 勿論地方人士 [illegible]

少年軍寫眞隊 金堤에서 興行

朝鮮少年軍京城總本部에서 同會의 趣旨를 널리 宣傳하기 爲하야 組織된 朝鮮少年軍活動寫眞隊는 南鮮地方巡回次에 去十五日金堤에 到着하야 金堤靑年會 金堤碧城少年團 東亞、時代、本報三支局의 後援으로 同日午後七時半부터 當地天道敎室에서 興行하엿다는데 立錐의 餘地가 업시 大盛況을 이루엇다 하며 多數한 同情金도 잇섯다더라(金堤)

元山의 家禽家畜

咸南에서 去一日家畜家禽을 一齊히 調查함에 따라 元山에서도 畜產組合으로부터 府內一圓에 亘하야 總調查를 行한바 第一多數는 鷄인데 鷄總數三千二百五十七羽이요 次로 豚이 百五十八頭요 牛는 三十四頭요 馬는 十六頭라는바 郡部에 比하면 比較的 家畜家禽은 少數라더라(元山)

對照되는 兩地主

▲金肯鉉氏 忠北鎭川草坪面琴谷里는 今年秋期에는 數十年前에 小作料穀一石을 玄米로 平三斗五升式徵收하든 同時에 玄米一斗를 徵收하던 小作料보다 더 減하야서 賭租中에서 控除하야 低利로 小作人間에 만 米穀融通機關을 組織하고 小作이 變更되는 때면 半分은 小作人에게 元利並하야 支給하기로 新規를 實行하고 地稅公課金은 全部地主가 負擔하엿는데 小作人들은 氏의 慈善을 紀念키 爲하야 數百圓金을 醵出하야 石碑를 建設코저 工事에 着手하엿다더라(鎭川)

▲韓秉哲氏 (忠南天安郡笠場面良岱里) 鎭川德山面에 所在土地秋收가 百餘石이나 되는대 今年八月頃에 震災로 農作物에 被害가 莫甚하야 小作人들은 韓氏에게 事實을 말하고 小作料를 減하여 달라한즉 韓氏는 말하되 鎭川震災는 新聞上으로 보지 못하엿스니 虛僞라고 조금도 減할수 업다고 沒人情하게 反駁하엿다더라(鎭川)

白馬公普學藝會

平北白馬公立普通學校에서는 同校創立十週年紀念日인 去十七日同校大講堂에서 學藝會를 開催하얏는바 定刻이 되매 同校長朴宗杰氏의 簡單한 開會辭가 有한 後 各種演藝에 入하야 八十餘種을 進行하얏는데 其中特히 五年生崔金女孃의 身體의 健康이란 演說과 三年生張益俊君의 鴈이란 獨唱은 滿場의 熱狂的喝采를 博하얏고 더욱이나 어린 金成玉孃의 딴스는 場內의 異彩를 放하야 六七百會衆을 心醉케 하얏는바 마즈막으로 六年生의 『學生의 家庭』이란 劇으로 閉幕되엿스며 今番學藝會는 實로 當地에 잇서서는 空前의 大盛況이라 하겟더라(白馬)

西鍾青年夜學

鳳山郡에 第一位를 點한 西鍾面公立學校敎員一同은 去十五日부터 同校事 [illegible]

孔德支部創立

全北金堤郡孔德面有志諸氏의 發起로 去十五日同面事務所에서 面民大會를 열고 金堤中學期成會孔德面支部設置에 關한 件을 決議한 後 繼續하야 支部創立總會를 開하고 規約을 修正通過한 後 會費를 調定한바 一等은 二百四十圓으로 十六等一圓八十錢外지 하기로 決議하고 任員을 選定한바 如左하다더라

◇任員
支部長 郭珍錫 財政委員 金淳箕 幹事 李振衡 安祥玉 贊助員 李準衡外二十三人(金堤)

長溪婦人夜學

全北長水郡溪內面長溪靑年會에서는 去月二十六日부터 婦人夜學을 長溪公立普通學校內에 設立하고 每夜三時間式 敎授하는바 地方人士中趙昌周 金秉元 林華圭 朴性玉 三氏의 同情金으로 諸般經費를 使用하고 敎員은 京城女子高等學院을 卒業한 李賢愛氏라는데 敎授方法과 學術이 精美하야 生徒는 三四十名에 近하얏다더라(長水)

鶴泉改良書塾

[illegible](沙里院)

●農務課長代로 堆肥講演 平南農務課長은 勸業에 對한 講演을 하겟다고 平原郡廳에 公文을 發送하엿는데 그後를 接한 平原郡守는 十八面長及面技手等을 去十七日永柔公普敎室에 招集하얏스나 공교히 課長은 不參하고 代理兵頭道屬仲道技手다는 두사람이 堆肥增殖이라는 題目을 가지고 멧가지 開口하엿다더라(平原)

●新院客月屠殺 載寧郡新院屠殺場의 客月屠殺數는 牛豚을 合하여 四十頭인대 其種別은 左와 如하다더라(新院)
牛牝一四頭 牛牡四頭 豚牝一二頭 豚牡一〇頭

◇取消申請 大正十四年十二月十七日發行朝刊貴報第二面記事中新義州高普紛糾解決이라는 題下에 本人이 學校에서 退學을 마첫다는 것은 事實無根이오며 實은 自願退學한 것이오니 玆에 證正하여 주심을 願함
大正十四年十二月十九日 金麟伊
朝鮮日報社長 貴下

◇寸鐵◇

◇【義州】平北에만 赤帽軍이 二千五百餘名인데 一月六日에 敎習生募集試驗을 또 行한다고 幾萬名爲限乎

◇【英陽】公普校生四名이 突然行方不明이 되엿는데 校當局은 事實을 秘密에 附한다고 是何曲折?

◇【俠館】十八日朝酷寒에 某妓生家門前에서 乞人의 僵屍가 낫다 그날 그 妓生房에서는 醉興에 겨워 或歌或舞한 靑年이 잇섯다 한다

南浦米穀輸出

一萬一千三百九十一石穀其他米二 [illegible]

客月末元山在穀

[illegible] 되고 外國米는 百六十四石인바 二九百八十五石인바 언제던지 減少 [illegible]

百三十三圓으로써 其重要한것은 [illegible] 을 增加하고 輸入은 五千五百餘圓 [illegible]

英陽公普改築

[illegible]

趙元祚氏

[illegible]